

화순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2018년산 공공비축미 배정시 논 타작물 재배실적 30% 반영

화순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가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쌀 외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339ha를 목표로 참여농가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단가는 1ha당 조사료는 400만원, 일반 및 꽃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으로 전체 평균 34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당초 2월 28일 예정된 생산조정제 신청 기한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4월 20일까지 연장하고, 기존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던 인삼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제외 품목을 4가지로(무, 배추, 고추, 대파) 줄였다.

또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지의 경우 50%만 면적이 인정돼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전라남도에서 나머지 농지의 차액분도 추가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면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때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시군 실적은 30% 반영해 배정된다.

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들녘경영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쌀 외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339ha를 목표로 참여농가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순군제공

특히 기존에 벼 재배농가에만 지원했던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논 타작물 재배 농지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료의 경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도비 11억여원을 추경에 반영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당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산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곳으로 한정됐지만 최근 농식품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2017년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는 신청이 가능

하다.

또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경우 신규면적(1,000㎡, 300여평)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논 타작물 전환면적 추경에 반영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성패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쌀전업농, 들녘별 경영체, 조사료 경영체 등 법인 등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쌀 생산량은 연간 약 420만톤인데 비해 수요량은 380만톤으로 공급과잉 상태

다. 해마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

생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 유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쌀 이외의 콩이나 조사료 등의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간간히 을 쓰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올해 쌀 수급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올 한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쌀값 안정화와 가격 상승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성군, 우리밀 농가 지원 대책 마련

'생산 장려금' 인상...생산기반 확충 기폭제 될 듯

밀 주산지인 장성군이 소비량은 줄어들어 두 번째로 많지만 자급률은 턱없이 낮은 밀의 생산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밀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장성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사)국산밀산업회와 장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산 밀 재배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밀 생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한 포대(40kg)당 생산 장려금이 일반 밀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무농약 밀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유기농 밀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밀은 '제2국민주식'으로 불린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32.1kg을 소비해 쌀(61.9kg) 다음으로 소비가 많다. 그러나 자급률이 1.8%에 불과해 나머지는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장성군은 밀 생산 장려금 인상이 생산 기반 확충의 기폭제로 작용해 우리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밀 주산지다. 전남도는 지난해 밀 재배 면적이 200ha 이상이고 출하량이 666톤 이상인 장성

군을 포함한 5개 군을 밀 주산지로 선정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국산밀산업회는 밀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 공로로 유두석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 군은 밀 생산 장려금 지급, 밀 수확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해 밀 재배 농가를 적극 돕고 있다"라면서 "장성군의 밀 생산 기반 확대 정책이 우리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익출 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우리 밀에 대한 장성군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감사하다"라면서 "소비 부분으로도 지원이 확대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 밀 수매량을 지난해의 50%로 배정했으나 소비량이 늘어난다면 전량 수매하겠다"라고 말했다.

밀 재배 농가 대표인 최갑순 씨는 "행정과 우리밀농협이 우리 밀의 소비처를 발굴하고 소비량을 늘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역시 밀 재배 농가 대표인 변주연 씨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에 우리 밀을 혼합해 우리 밀 소비처를 늘리고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백종욱 기자

함평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과수·채소·특작 등 재배농가 242동 보급

함평군은 7억 9000여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4억 5200만 원을 들여,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242동(동당 9.9㎡)을 과수, 채소, 특작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농산물 저장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또, 군은 시공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실시공·사후관리 미흡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월 시공업체를 공모하여 14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선정 업체별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에서 직접 농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지원 대상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가와 건설한 업체 간 계약이 조속히 이뤄져,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함평=최부일 기자

나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상상마당 기획단 모집

오는 14~29일 모집...매월 기획·평가회의 진행

나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주민공동체 및 지역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공익상상마당 기획단'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익상상마당 기획단은 15명 이내로 구성될 계획이며, 구성된 기획단은 매월 기획회의와 평가회의를 진행하며 공익상상마당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하는

공익상상마당 기획단은 나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활동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나주공익활동지원센터 061-337-9901로 연락 또는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najugongik@hanmail.net)이나 사무실(나주시 배매3길 19-3, 엠제이빌딩 4층)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정윤방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나주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개관한 나주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내 손으로 만드는 웰자보 교육', '모뎀 교육' 등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나주로 이전한 4대 전력그룹사(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와의 '열린혁신 타운홀 미팅' 주관, 시민·사회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민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주=조성준 기자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어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